

지구를 웃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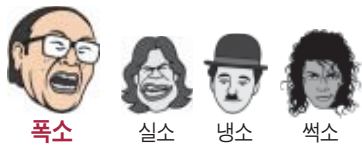
일러스트=남무성

“좀비가 되는 것 같다” 탈옥후 再수감된 마약왕 점호로 잠 설친다고 투정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이 지난 달 탈옥 6개월 만에 붙잡혀 재수감된 이후 교정 당국의 삼엄한 감시에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다. 구스만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매일 밤 두 시간마다 계속되는 점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교도관들이 나를 ‘좀비’로 만들고 있다”고 불평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구스만은 또 독방 앞에 배치된 경비견의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호소했다.

구스만은 작년 7월 1.5km 길이 땅굴을 파서 탈옥했다. 다들 자는 시간에 땅굴 파느라 잠 안 자는 데는 이력이 났을 테니 한밤중 점호는 생체리듬에 맞을 것 같은데, 구스만은 자신의 탈옥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영화 관계자들을 만나다 가 다시 붙잡혔다. 언제 나갈지 몰라도 그때 좀비 영화로 만들면 되겠네.

Why? 생각



복소 실소 냉소 색소

‘함승훈 이사장’ B1면에서 계속

- 재혼은 왜 안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지난 일들이 너무 또렷해 도저히 잊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

“나눔과 배움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함 이사장은 박사 학위를 받고 계명대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되어 두 아들과 귀국했다. 교수 시절엔 학교 앞에 집을 얻어 첫째는 초등학교로, 둘째는 어린이집으로 등교시키고 출근했다. 점심 시간에 다시 집으로 가서 두 아들 밥 챙겨 먹고 연구실로 데려왔다고 한다. 이웃 아줌마들은 ‘한참 손 많이 가는 애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고 놀라워하지만, 그는 ‘알아서 세우고 옷 갈아입고 가방 챙기고 방 청소하는 등 아이들 스스로 엄마의 공백을 메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모습을 지켜본 그는 도저히 수험생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어 두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독일로 유학을 보냈다고 한다. 두 아들은 독일에서 중등 과정을, 영국 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마치고 헝가리 데브레첸 의대로 진학했다. 맏아들은 한국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현재 고려대병원 인턴으로, 둘째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있다.

- 자식 의사 만든 ‘바짓바람’이 거창국제학교의 밑거름이 됐군요.

“전 세계적으로 의사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국소수 학생에게만 의사의 길을 열어 놨습니다. 의학의 머리가 아니라 영딩이 공부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기보다 이미 완성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니까요. 영어 수학 점수 좀 모자라도 남에게 애정받고 관심 많은 아이가 더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국내 의대 진학 점수는 모자라더라도 열정과 꿈을 가진 학생을 받아 글로벌 국제 의사로 키우려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 거창국제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2년 6개월 과정을 마치면 전원 데브레첸 의대와 치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의학기초과정 한국캠퍼스인 셈이죠. 데브레첸 의대 교수진이 1년에 두 차례 와서 학과목 커리큘럼 등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생물·화학 등 중요 과목은 데브레첸 교재로 수업하지요.



거창국제학교 학생들은 졸업하면 헝가리 데브레첸 국립 의대로 진학한다. 데브레첸 의대는 국내 의대보다 훨씬 많은 360학점을 6년간 이수해야 한다. 학생 절반이 낙제를 경험하지만, 거창국제학교 출신들은 80% 이상이 우수한 성적을 올린다고 한다. 작년 9월 데브레첸 의대를 졸업한 거창국제학교 출신 5명(사진 왼쪽, 오른쪽 사진은 재작년 이 대학을 졸업한 함창화(왼쪽)씨와 함창수(오른쪽)씨로 함승훈(가운데) 이사장의 두 아들이다.



거창국제학교 재교

막내 세살때 아내와 사별 어른들 반대 무릅쓰고 재혼 않고 키운 두 아들 한국과 독일서 의사로

의학기초과정 한국캠퍼스 헝가리 의대 교수진 1년에 두 번 방문해 학과 커리큘럼 점검

학생중 형제·자매가 30% 독하게 공부해서 월반 16세에 의대 간 학생도 너희들은 축복받은 학생 ‘받은 만큼 베풀라’ 가르쳐

- 데브레첸 의대는 다른 나라에도 캠퍼스가 있나요. “우리 학교가 유일합니다.”

-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까. “두 아들을 여기 보내 보니, 의사 되고 싶은 다른 한국 학생들도 데브레첸 대학에 진학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대학본부에 찾아가 한국 인재들을 책임지고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황당해하다가 저의 계획을 들어 보더니 흔쾌히 허락하더라고요. 요즘은 데브레첸 교수들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들이 다른 나라 학생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합니다.”

- 왜 헝가리 대학이었습니까. “유럽에 있는 의대 중 영어로 강의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모두 자기 나라 말로 가르치는 대학뿐이죠. 하지만 헝가리 국립의대 4곳 모두 영어 교육 코스를 운영해요. 데브레첸 의대는 헝가리 대학 평가에서 늘 선두권이고, 졸업생들의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 합격률도 90%에 이릅니다. 물론 영국 의대는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치겠지만, 학비가 미국 의대처럼 너무 비쌌습니다. 헝가리 의대는 미국 학비의 20% 정도지요. 노르웨이·독일·이스라엘 등 유럽 전역에서 유학생들이 몰린답니다.”

- 나라마다 의사 뽑는 조건이 다른데.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은 소속 국가에서 발급한 의사 면허를 공유합니다. 데브레첸 의대를 나와 헝가리 의사 시험에 합격하면 유럽 의사 자격을 얻게 되지요. 하지만 의사로 근무하려면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프랑스 의사가 되려면 프랑스어 학시험에 합격해야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 출신들은 영어를 잘해 미국 진출에 강점이 있습니다. 현재 졸업생 3명이 미국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진료하고 있지요. 다른 한 명은 미국 치과 의사가 됐고, 또 다른 한 명은 뉴질랜드에서 개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누비는 국제 의사 양성해야

- 우리나라에선 의사 활동이 가능합니까. “한국 의사가 되려면 미국처럼 의사국가시험(국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 의대 출신들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국시 자격을 줍니다. 재작년 보건복지부와 전문가 5명이 헝가리에 가서 실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수준에 미달해 외국 의대에 국시 자격을 주지 않으나, 데브레첸 의대는 무난하게 심사를 통과했지요.”

- 졸업생 중에 한국 의사가 있나요? “올해 처음 국시에 응시한 4명 중 3명이 합격했습니다. 제 딸이들이 고려대 병원 인턴으로 갔고, 나머지 두 졸업생은 군의관 임대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자들에게 한국으로 올 생각 말고 미국이나 유럽 아니면, 아프리카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 가서 활동하라고 권유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라는 거지요.”

거창국제학교 전교생은 모두 60명이다. 한 학년 정원은 20명이고, 교사는 13명이다. 학생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정원을 늘리지 못한다고 한다. 함 이사장은 “우리 학교는 공부 싫은 학생들이 가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의사 되려고 공부하려는 학생만 오는 대안학교”라고 했다. 학생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한다. 의대 진학을 위한 예비과정이다 보니 학생들을 상대 평가 하지 않고 일정 수준 학력 도달을 위한 절대 평가 방식을 성적표를 관리한다.

- 어떤 학생들을 뽑습니까. “중등 졸업 이상 학력자를 상대로 시험과 인성 면접을 본다. 데브레첸 의대는 졸업이 무척 어렵습니다. 유급·제적당하는 학생이 절반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중에서도 열 명 중 한두 명은 유급이나 제적당합니다. ‘외국 의대 나와 의사 해볼까’ 하는 나약한 마음으로 온 아이들은 돌려보냅니다.”

거창국제학교 2016년 1학기 하요일 수업 시간표

Table with 2 columns: Time and Subject. Rows include 07:50-08:35 생리학, 08:45-09:30 생리학, 09:40-10:25 의화학, 10:35-11:20 의화학, 11:30-12:15 유전학, 12:15-13:00 점심식사, 13:00-13:45 토론회, 13:55-14:40 토론회, 14:50-15:35 현대 물리학, 15:45-16:30 현대 물리학, 16:40-18:00 세미나 수업·화학, 18:00-19:00 저녁식사, 19:00-22:00 그룹스터디·자율학습

불법 논란 콜버스 불러보니... ‘택시 지옥’ 강남역에 10분 만에 도착

국토부 “적법성 여부 이달중 결론”

지난 17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강남역에서 스마트폰 콜버스 앱을 통해 버스를 불렀다. 목적지에는 3.5km 떨어진 서초구 잠원동을 입력했다. 택시 요금이 5000원 남짓 나오는 거리로 한밤중 택시로부터 수없이 승차 거부를 당한 적이 있는 곳이다. 입력하자마자 콜버스 앱에 곧바로 강남역 변화가 한 가운데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오라는 알림이 떴다. 당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이었다. 10분이 채 못 돼 25인승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버스 옆에 크게 ‘콜버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지난 12월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밤마다 유치원이나 학원 버스처럼 생긴 노란색 버스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콜버스다. 총 4대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만 운행한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가입자가 1만명, 실제 결제를 하고 이용한 사람은 2500명을 넘었다.

콜버스는 심야에 승객과 전세버스를 이어주는 서비스다. 이름은 버스이지만 노선은 없

다. 정해진 곳을 정기적으로 오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승객들이 그때마다 버스 경로를 만들기 때문이다. 첫 번째 승객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비슷한 지역, 그중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요청한 승객이 같은 버스에 더 탈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초구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A)에서 강남구 대치역(A')까지 가려는 사람 A와 강남역(B)에서 일원동(B')까지 가려는 사람 B가 있으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A)-강남역(B)-대치역(A')-일원동(B')으로 경로가 정해지는 것이다. A를 먼저 태우고 B를 태운 뒤 A가 내리고 B가 내린다.

택시처럼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여러 명이 타는 만큼 가격이 저렴하다. 기본료 2000원에 4km까지 가고 그 이후 1km마다 600원씩 추가요금 붙는다. 새벽 1시에 7km 거리인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치역까지 가려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치역까지 3000원에 2km, 142m당 100원, 환율 20%까지 붙어 적어도 78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콜버스 요금은 기본료 2000원에 1800원이 붙은 3800원 정도다. 택시 절반 수준이



성행주 기자 지난 17일 밤 복잡한 서울 강남역에서 콜버스를 불렀다. 근처 학동역에 대기하고 있던 콜버스가 10분 만에 승객을 태우러 왔다.

다. 가격 이외에도 장점은 많다. 승차 거부 없는 데다 택시 기사와 직접 마주쳐야 한다는 부담도 없다. 시범 운행 때부터 석 달째 콜버스를 운전하고 있다는 전세버스 기사 김모(43)씨는 “여성 손님들이 대부분인데 일부 택시 기사가 던지는 불필요한 농담이나 성희롱이 없어서 좋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다. 김씨는 “하루에 30명쯤 태우는데 이미 10명은 매일 타는 고정 승객”이다.

콜버스를 만든 ‘콜버스랩’의 박병중 대표는 승차 거부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고치고 싶었다고 했다. “전 직장에서 새벽 2시에 되근하는 날이 잦아 회사 앞에서 택시를 타면 너무 짧은 거리라 그런지 갑자기 예약된 차라고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박 대표는 심야 승차 거부 없는 택시 기사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심야 시간대 택시 수급이 맞지 않는 탓이 크다고 했다. 지난 2014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밤 12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서울 시내엔 승객보다 택시가 약 5300대 부족하다.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은 택시가 이보다 더 부족하다고 느낀다. 박 대표는 야간에 주로 일어나는 승객 골라 태우기, 승차 거부 등 문제가 이 수급 불균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콜버스가 심야 택시의 부족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를 부른다는 점에서 우버 택시와 비슷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우버는 지난해 6월 법원으로부터 현행 법상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반면 콜버스는 전세버

스 회사에 기사로 등록된 직원이 운전하기 때문에 우버에서 불법이 됐던 사업용 면허 등의 문제가 없다. 하지만 또 다른 점에 휩싸였다. 택시 업계에서는 ①전세버스는 노선 운행을 할 수 없다 ②전세버스는 다중 계약을 할 수 없다 ③전세버스는 불특정 다수를 실어 나를 수 없다는 이유로 콜버스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박 대표는 콜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가는 것이 아닌 데다 콜버스 앱을 내려받아 결제한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 다중 계약도, 불특정 다수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콜버스 측은 이미 법무법인 태평양과 IT 전문 법무법인 테크앤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기존의 전세버스 운행을으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받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콜버스의 적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김지혜 사무관은 “새로운 형태의 교통 서비스인 만큼 적법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이달 안으로 적법성 여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